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2.20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원/달러 환율

1,445.50원 (+0.60원)

KOSPI

5,677.25 (+170.24, +3.09%)

KOSDAQ

1,160.71(+54.63, +4.94%)

국고채 10년 금리

3.588(+0.017%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Econ Snapshot

미국 1월 FOMC 의사록: 엇갈리는 내부 의견 [전규연]

기업분석

한화솔루션

과속 방지턱은 확인하면서 가야지 [윤재성]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에 따른 멀티플 개선 전망 [김현수]

Weekly

통신서비스

연초부터 5G SA 이슈가 뜨겁습니다 [김홍식]

유tility

지연되고 있는 LNG 용량시장 입찰 [유재선]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KB금융, 한화솔루션, 엔씨소프트, CJ대한통운, 금호타이어, 아이에스동서, 덕산하이메탈

CJ프레시웨이, 이노와이어리스

하나증권

Econ Snapshot

Economy | 2026.2.19

Economist 전규연 kychun@hanafn.com

미국 1월 FOMC 의사록: 엇갈리는 내부 의견

인플레이션: 2% 물가 목표를 향해 점차 낮아지겠으나, 속도와 시점의 불확실성 높아

- 참가자들은 대체로 관세가 핵심 상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올해부터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 일부 참가자들은 주거비의 지속적 둔화가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 몇몇 참가자들은 기술 발전과 연관된 생산성 증가가 인플레이션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 기업들이 공정을 자동화하고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활용 →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에 전가하거나 마진을 줄일 필요성 약화
- 다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2% 물가 목표를 향한 진전이 예상보다 더 느리고 불규칙할 수 있다고 경고. 인플레이션이 물가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회할 위험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함
- 이들 중 일부는 기업들이 비용 압력에 대응해 올해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고를 인용. 몇몇 참가자들은 수요 압력이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2% 목표 대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 제기

노동시장: 안정화 조짐 보이나 하방 리스크도 염두에 둘 필요

- 노동시장이 올해 안정화된 뒤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지만, 노동시장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도 계속 언급
- 대다수 참가자들은 노동시장 여건이 어느 정도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완화되었다고 판단
- 구인 가능성에 대한 설문 지표 등에서 노동시장 여건의 추가 약화를 여전히 시사한다고 지적
-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언급. 특히 일부 참가자들은 채용이 적은 환경에서 노동수요가 추가로 감소할 경우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 혹은 고용 증가가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커졌음을 시사한다고 지적

통화정책 전망: 위원 별로 각기 다른 견해 제시

- 몇몇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하락한다면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
- 일부 참가자들은 유입되는 데이터를 평가하는 동안 정책금리를 한동안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 이들 중 다수는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이 확실히 다시 궤도에 올라섰다는 명확한 조짐이 있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정책 완화가 정당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
- 몇몇 참가자들은 향후 금리 결정과 관련해 위원회가 양방향(two-sided) 설명을 포함했어야 한다고 지적. 이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속될 경우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영

총평: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기 전까지 금리 동결 우위

- 1월 FOMC 의사록은 고용시장의 하방 리스크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될 위험에 무게를 둠
-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은 여전히 금리 유지 또는 인하 쪽으로 쓸려 있으나, 몇몇 위원들이 금리 결정과 관련해 양방향(two-sided) 설명을 포함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1월 FOMC 의사록은 매파적으로 인식. 이는 당장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표현으로 해석할 필요
- 다행히 미국 1월 CPI가 전년비 2.4%로 예상치(2.5%)와 전월치(12월 2.7%)를 하회하며 안정되고 있어 물가 상방 리스크를 과도하게 경계할 필요는 없는 상황. 미국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추정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의 경직성은 추가 금리 인하를 제어하는 요인인 될 것
- 연준 내부에서 금리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기 전까지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음. 금리 인하는 노동시장의 추가 냉각 신호가 확인될 때 가능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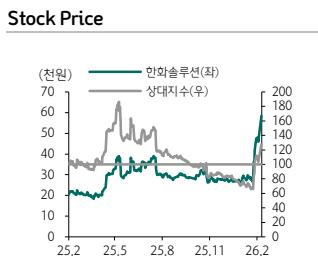


BUY (유지)

목표주가(12M) 65,000원(상향)
현재주가(2.19) 58,5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5,677.25
52주 최고/최저(원)	58,500/18,410
시가총액(십억원)	10,055.7
시가총액비중(%)	0.21
발행주식수(천주)	171,892.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403.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73.9
외국인지분율(%)	14.44
주요주주 지분율(%)	
한화 외 4 인	36.48
국민연금공단	5.75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3,061.4	15,577.3
영업이익(십억원)	(14.6)	616.9
순이익(십억원)	(434.4)	53.5
EPS(원)	(2,748)	271
BPS(원)	50,437	51,420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P	2026F
매출액	13,078.5	12,394.0	13,354.4	14,803.3
영업이익	579.2	(300.2)	(353.2)	615.7
세전이익	132.1	(1,423.7)	(828.7)	118.4
순이익	(141.0)	(1,404.4)	(669.8)	94.5
EPS	(795)	(8,050)	(3,839)	542
증감율	적전	적지	적지	흑전
PER	(49.69)	(2.00)	(6.98)	107.93
PBR	0.84	0.29	0.53	1.15
EV/EBITDA	12.33	35.32	45.73	13.57
ROE	(1.66)	(15.99)	(7.37)	1.08
BPS	47,157	54,793	50,658	50,903
DPS	300	300	300	300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2026년 02월 20일 | 기업분석_Update

한화솔루션 (009830)

과속 방지턱은 확인하면서 가야지

단기 실적 펀더멘털 회복 가능성 점증

2026년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의 공급과잉 해소 및 판가 상향 가능성은 감안하면 한화큐셀을 중심으로 한 전사 실적 개선은 뚜렷할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2026년 전사 영업이익을 컨센(6,169억원)과 유사한 6,157억원으로 추정한다. 이는 2025년 영업이익 -3,532억원 대비 약 +1조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2026년 이익 개선의 대부분은 태양광 모듈 사업의 AMPC 개선효과(YoY +4.2천억원)와 모듈 판가 상승(YoY +4~5 cent/W)에 기인한다. AMPC 개선은 셀 통관 이슈 종료에 따른 모듈 공장의 정상가동 등 영향이며, 모듈 판가 상향을 가정한 것은 Non-FEOC 규정을 만족하는 태양광 모듈의 공급 부족에 따른 프리미엄 확대 영향이다. 실제 회사는 최근 판매가를 감안할 때, 모듈의 연 평균 ASP 상승이 +5 cent/W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의 2026년 출하량 목표 9GW, 환율 1,450원,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시 이론적으로 +5 cent/W 당 연간 영업이익은 약 +6,500억원 개선된다. 참고로, 하나증권의 2027년 영업이익 추정치 1조원은 2024년 대비 태양광 모듈 ASP가 +8 cent/W 개선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2027년 추정치에 중국업체 Valuation 적용 시 목표 시총 11조원 가능

한화솔루션의 주가는 2월 초부터 현재까지 약 10일 거래일 만에 +114% 급등했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전지의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현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2027년의 어닝 추정치와 중국 Top-Tier 페로브스카이트 업체의 Valuation을 적용해야 한다. 참고로, 하나증권은 2027년 태양광 EBITDA 1.3조원(영업이익 1조원+감가상각비 0.3조원)에 중국 LONGi(15x), Trina Solar(12x), Jinko Solar(10x)의 평균 Multiple 13배를 적용해 태양광의 EV를 약 17조원으로 추정한다. 석유화학/첨단사업 합산 EV 2조원 및 투자자자산가치 2.5조원에 2026~27년 추정 순차입금 10조원 차감 시 목표 시총은 11조원, 목표 주가는 6.5만원으로 산출된다. 현 주가에서 Upside는 11% 수준이다.

과속 방지턱은 확인하면서 가야지

BUY를 유지하고, TP는 긍정적인 업황을 반영해 기존 4.7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한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태양광 시장 규모 확대 계획 및 중국 페로브스카이트 업체 미팅 등은 필연적으로 밸류에이션 확장의 가능성은 높이는 요소다. 하지만, 제시한 목표 시총이 최대한 긍정적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Upside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1) 현재 가정 대비 태양광 모듈 ASP 상승폭 추가 확대 2) 한화솔루션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전지의 양산 계획 구체화 3) 차입금 감축을 위한 각종 자산에 대한 매각 계획 구체화 등이다. 2022년 대비 순차입금이 7조원 가량 증가한 현 시점에서 당시 기록한 역대 최고가 7만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469,000원(상향)
현재주가(2.19) 408,0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5,677.25
52주 최고/최저(원)	408,000/160,200
시가총액(십억원)	32,878.9
시가총액비중(%)	0.70
발행주식수(천주)	80,585.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823.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81.0
외국인지분율(%)	24.18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전자 외 4 인	20.31
국민연금공단	6.87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2,907.6	15,050.2
영업이익(십억원)	(1,709.1)	(472.5)
순이익(십억원)	(623.8)	(21.8)
EPS(원)	(7.947)	(618)
BPS(원)	266,464	266,568

Stock Price



Financial Data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1,436.8	16,592.2	13,266.7	15,561.2
영업이익	1,545.5	363.3 (1,722.4)	(737.4)	
세전이익	2,381.8	527.3 (1,364.0)	(527.3)	
순이익	2,009.2	599.3 (649.5)	(332.8)	
EPS	27.788	8,288 (8,326)	(4,049)	
증감율	2.93 (70.17)	적전 적지		
PER	16.63	29.24 (32.37)	(100.77)	
PBR	1.77	0.87 1.03	1.59	
EV/EBITDA	11.58	13.38 457.75	49.51	
ROE	11.48	3.13 (3.17)	(1.58)	
BPS	260,787	278,144 262,136	257,155	
DPS	973	973 973	973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흥지원 jiwonhong@hanafn.com

2026년 02월 20일 | 기업분석_Report

삼성SDI (006400)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에 따른 멀티플 개선 전망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시 최대 11조원 현금 유입 가능

삼성SDI가 ‘투자자원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등의 매각 추진’을 공시했다. 매각 규모 및 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예상 현금 유입 규모 및 재무 구조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근 사업보고서(3Q25) 기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디스플레이 지분의 장부가는 약 10.1조원이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향후 2년간 연평균 영업이익 전망치(약 4조원~5조원)를 기준으로 중국 패널 메이커 BOE의 PER(26F 15.5배, 27F 12.9배) 적용 시 삼성디스플레이의 적정 가치는 약 65조원~70조원 수준으로 도출된다. 여기에 삼성SDI의 지분율(15.2%)을 적용하면 현 장부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도출된 장부가와 BOE의 PBR(26F 1.10배, 27F 1.04배)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삼성SDI의 보유 지분은 장부가 대비 1.1 배 내외에서 현금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보유 지분 전량을 현금화할 경우 최대 약 11조원 내외의 현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유동 비율 1 회복 및 FCF의 플러스 전환 전망

이에 따라 재무 구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4Q25 말 기준 삼성SDI의 자산은 42.3조원, 부채 18.7조원, 자본 23.6조원으로 부채비율은 79.3%다. 약 11조원 내외 현금 유입 가정 시, 부채 변동 없다는 가정하에 부채비율은 50%대 중반까지 하락한다. 유동성 지표 역시 뚜렷한 개선이 예상된다. 4Q25 말 기준 삼성SDI의 유동자산은 8.7조원, 유동부채는 9.8조원으로 유동비율은 0.89배에 불과하나, 상기 현금 유입으로 인해 유동자산은 약 19.7조원 수준으로 확대되며 유동비율은 약 2.0배 내외까지 개선 가능하다. 잉여현금흐름(FCF) 개선 강도 역시 매우 크다. 현재 FCF는 약 -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나, 일회성 현금 유입 반영할 경우 FCF는 단기적으로 약 +10조원 수준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일시 매각이 아닌 점진적 유동화 방식을 선택할 경우 상기한 재무구조 개선은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이나, 흐름 자체는 뚜렷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분법이 악 감소에 따른 순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다. 연간 지분법이익이 2024년 0.8조원, 2025년 0.6조원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예상 지배주주순이익 약 1조원에서 지분율 변화 반영해 이익 추정치가 소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 있다.

Valuation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지분법 이익 감소 감안하더라도 멀티플 리레이팅에 따른 주가 상승 동력이 더 강할 것으로 판단한다. 삼성SDI가 LGES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멀티플을 부여 받은 이유 중 하나가 현금 부족 및 이에 따른 투자 타이밍 실기였는데, 상당한 현금을 확보하며 이러한 Valuation Discount 논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2027년 예상 지배주주순이익에 최근 5년 24M Fwd P/E의 최상단인 37배(LGES의 24M Fwd P/E 상단은 43배) 적용해 목표 주가를 469,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BUY를 유지한다.

연초부터 5G SA 이슈가 뜨겁습니다

통신서비스 Weekly | 2026.2.2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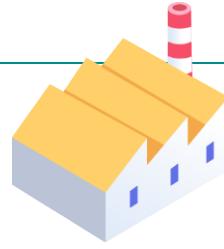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주간 동향 및 코멘트

다음주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연초부터 전세계적으로 5G SA 도입 이슈가 뜨거워지는 상황이다. 국내 규제 기관에서는 5G SA 전환을 위한 민/관 워킹 그룹을 발족했으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마치 2019년도와 흡사한 분위기인데 갑자기 5G SA가 AI 발전의 필수 인프라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조기 SA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네트워크 성능 평가 기관들의 보고서가 주목을 끈다. 국내외 규제 기관들의 5G SA 도입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미국이 빠른 속도로 5G SA 분야의 우위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엔 속도 측면에서 세계 상위권이지만 발전 속도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다. 국내의 경우 향후 5G SA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직까진 LTE 주파수 재할당 방침 외에 특별한 5G 신규 투자에 대한 얘기가 전무한 상황이나 곧 주파수 재할당 이후 LTE 주파수 5G 재배치 및 신규 주파수 할당에 따른 5G 신규 투자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FHIC/KMW/이노와이어리스/오이솔루션 등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 최근 SKT 주가가 급등락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공격적인 외국인/기관 매수세 유입과 더불어 공매도 청산 물량이 작용한 탓이다. 일부에선 최근 SKT 주가 상승을 엔트로픽 지분 매각 차익 기대감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다. 현재 SKT 주가 상승의 바탕엔 올해 2024년 이상의 이익 달성과 배당금 지급 가능성, 5G SA 도입에 따른 요금제 변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2026년 SKT DPS가 3,600원에 달한다고 보면 아직도 기대배당수익률이 4.4%에 달하는데 비과세 배당을 감안하면 세후 수익률에선 더 매력적일 수 있으며 과거 LTE/5G 요금제 개편 당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배당수익률이기 때문이다. 서서히 투자자들은 5G SA 시대의 SKT 적정 기대배당수익률을 생각할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SKT 주가는 최소한 기대배당수익률 3.6% 수준인 10만원까진 무난히 상승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기대배당수익률 3%선인 12만원까지도 상승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SKT 고평가론에 동요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며 여전히 현 주가 수준에선 매수로 임할 것을 권한다.
- 최근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양자암호통신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양자컴퓨터 조기 등장 가능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해 해킹 관련 이슈가 뜨거웠던 탓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암호 화폐 가격 급락이 나타나면서 양자암호통신을 갖춰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5년부터 양자암호통신은 통신장비 업체들을 중심으로 급격한 발전을 해왔다. 초기엔 전송 장비 업체 위주로 양자암호통신을 내장하는 형태를 나타냈지만 최근엔 전송 거리의 확장과 정교함을 바탕으로 무선으로의 장착도 가능해졌다. 곧 무선통신장비에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VIA PUF 적용이 가능해 상반기내 통신사 진출 및 빅테크 매출이 기대되는 ICTK에 우선 주목하면서 우리넷, 슬리드에도 관심을 높일 것을 권한다.
- 다음주 통신서비스 업종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순으로 제시한다. 통신 3사 중에선 SKT를 Top Pick으로 제시한다. 기대배당수익률로만 보면 여전히 통신 3사 중 가장 매력적이며 2024년 이상의 이익 달성과 더불어 배당 조기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장비 업종에선 RFHIC/KMW/이노와이어리스/쏠리드/RF마트리얼즈/ICTK를 추천종목으로 제시한다. 특히 무선 부문으로의 수혜 확산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지국 장비업체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다.

지연되고 있는 LNG 용량시장 입찰



유틸리티 Weekly | 2026.2.2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주간 리뷰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0.6% 상회했다. 18일 종가 기준 WTI는 65.3달러/배럴(WoW +0.8%), 미국 천연가스는 3.0달러/mmbtu(-6.5%), 아시아 LNG 현물은 10.4달러/mmbtu(-5.5%), 호주산 유연탄은 116.8달러/톤(+1.7%), 원/달러 환율은 1,442.5원(-0.3%)을 기록했다. 종동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유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 여부 및 기간이 중요하다.
- 2월 13일에 2025년 12월 전력통계월보가 공개되었다. 한국전력의 4분기 판매실적 및 원가에 대한 대략적 분위기 확인이 가능하다. 판매량은 산업용 중심으로 문화 추세가 지속되는 중이다. 판매금액도 산업용 요금인상 기저효과가 사라진 이후 증가세가 완만해졌다. 외부 구입전력량은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SMP 하락으로 구입금액은 크게 개선되었다. 한편 겨울철 SMP 하락 대비 실제 구입단가의 비율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SMP로만 비용을 촉정할 경우 과소 추정의 여지가 존재한다. 다음 주 실적발표에서 유의해야 할 변수는 해외사업 수익 규모와 매출 역성장 여지, 충당부채(사용후핵연료, 자회사) 증가 여부다.
- SK멀티유틸리티의 300MW 규모 LNG/LPG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는 모습이다. SK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 KET 등 기존 고객사와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에게 전력과 스팀이 모두 공급된다. 한국전력의 산업용 요금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면 수요자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산업용 요금보다는 낮지만 SMP보다는 높게 판매할 수 있다면 발전사 입장에서도 좋은 조건이다. SGC에너지와 같은 산업단지에 위치한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는 현재 소매요금 구조가 추가 수익 창출의 기회로 작동할 수 있다. 낮 시간대 산업용 요금 조정(인하) 및 지역별 SMP 도입으로 산업용 요금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인하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여지가 존재하나 SMP와 간극을 크게 좁힐 만큼의 대규모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기후부의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 의향 조사 결과 지역난방용 설비용량이 2040년까지 5.7GW 수준으로 보인다. 산업단지도 중장기 연료전환, 증설, 신규 입지 등 3GW 이상 수요가 확인되는 모습이다. 지역난방공사의 신청 건수와 용량이 가장 많다. 현재 규제 상 신규 LNG 열병합 발전소는 LNG 용량시장 입찰 또는 CHPS 청정수소 입찰을 통해 시장 진입이 가능하며 지금은 발전공기업들이 기존 노후 석탄화력의 대체 설비 목적으로 시장 수요를 선점하고 있다. 2024년 LNG 용량시장 입찰 결과 대전열병합(기존 113MW를 495MW로 증설)과 한양(여수 묘도 495MW)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025년에는 이월 물량까지 고려하여 1.6GW 시장이 개설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지금까지 지연되는 상황이다.
- 2026년 ESS 종양계약시장 2차 입찰 결과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었다. 선정된 설비용량은 총 525MW이며 6시간 충방전 기준이기 때문에 3,150MWh 수요가 발생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SK이노베이션E&S 188MW, 남부발전 162MW, 중부발전 96MW, 남동발전 79MW, 탑선 40MW(제주)로 확인된다. SK이터닉스는 1차 입찰에서 제주 표선 40MW 사업이 선정되었지만 이번 2차 입찰에서는 낙찰된 프로젝트가 없다. 용량가격이 경쟁 심화로 디벨로퍼 입장에서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 온실가스 배출권(KAU25) 가격은 19일 종가 기준 12,850원으로 전주대비 0.8% 상승, YTD 24.8% 상승했다.

종목 코멘트

- SGC에너지(Top Pick): 현재 발전사업 허가 상 100MW 증설 가능하나 한전 계통 물량. 장기적으로 LNG 용량시장 입찰 필요
- 지역난방공사: 주가 하락세 진정 국면. 향후 단기 주가 상승 여력은 2025년 사업연도 배당성향 확대 여부에 달려있음
- SK이터닉스: 최대주주 변경 시 솔라닉스 프로젝트 수행 능력 제고 기대.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완화도 긍정적
- E1: 기말 배당금 주당 4,100원으로 결정. 배당기준일은 4월 2일. 연간 DPS 4,550원으로 전년대비 31.9% 증가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2/9	158,600	190,000	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2/9	149,300	166,500	11.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분기 실적의 특징은 수수료이익 대폭 증가, 기밀배당 큰폭 확대, 주주환원 재원 확보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총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도 긍정적 요인
한화솔루션 (009830.KS)	2/9	42,000	58,500	3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셀 통관 이슈 종료로 모듈 가동률 정상화, 고정비 부담 감소, AMPC 증가 요인 2026년 케미칼/신재생 모두 우호적인 영업 환경. 우주 기대감까지 더해져
엔씨소프트 (036570.KS)	2/9	216,500	227,000	4.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온2]의 성공적인 출시, 자체 결제 도입으로 2026년 실적 가시성 상승 [아이온2]의 순항에 힘입어 월정액 29,700원 [리니지 클래식] 2월 7일 출시 예정
CJ대한통운 (000120.KS)	2/9	108,800	140,100	28.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쿠팡의 독점을 제한하기 위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해제 입법 추진 긍정적 물류 자동화 및 물류창고 아웃소싱 확대로 계약 물류(CL) 안정적 성장 기대
금호타이어 (073240.KS)	2/9	6,240	7,050	12.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평 및 유럽 신공장 증설에 따른 중장기 외형 확대 및 수익성 개선 물량 회복과 SP 마진 확대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
아이에스동서 (010780.KS)	2/9	27,250	31,000	13.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4월, 3.5조원 규모의 대구 자체사업 분야를 결정함에 따라 외형 레벨업 예상 지방광역시 집값 반등과 대구 미분양 감소 등 긍정적 시그널 감지
덕산하이메탈 (077360.KQ)	2/9	11,560	11,550	-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FCBGA 수요 증가에 따른 패키징 소재 증가 저수익성 Paste 제품을 상대적 고수익성 제품으로 재편하는 것을 추진 중
CJ프레시웨이 (051500.KQ)	2/9	32,450	33,400	2.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 경기 부진에도 식자재유통의 방어, 급식사업의 성장 기대 온라인 채널 고객사 빠르게 증가 중이며, 아파트/군 급식 등 신규 수주 기대
이노와이어리스 (073490.KQ)	2/9	32,000	35,650	1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일본 5G Advanced 투자 본격화, 스몰셀 매출 정상화 등으로 이익 급성장 기대 PBROI 1배 수준에 불과해 역사적 저평가 상황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5.31%	+2.22%p	+30.65%	+8.02%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B금융 (105560.KS)	2/9	149,300	166,500	11.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분기 실적의 특징은 수수료이익 대폭 증가, 기말배당 큰폭 확대, 주주환원 재원 확보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총당금 추가 적립 및 과정금 불확실성 해소도 긍정적 요인
키움증권 (039490.KS)	2/9	405,000	487,500	20.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오리온 (271560.KS)	2/9	124,000	137,000	10.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상반기 톤당 만달러까지 상승했던 카카오 가격 현재 6천달러 내외까지 하락 중국 내 주요 부자재 및 원자재도 가격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원가 부담 완화 예상
이수스페셜티케미컬 (457190.KS)	2/9	100,000	100,800	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고체 배터리 소재 '황화리튬' 대량 제조 가능한 국내유일업체 전고체 배터리, 휴머노이드 산업 개화와 맞물리며 조기 상용화 기대감 상승
케이엠더블유 (032500.KQ)	2/2	18,920	20,650	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과 더불어 에릭슨, 노키아로의 매출 확장 가능성 상승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팹오션 (028670.KS)	1/19	4,155	5,530	33.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비트라지 수요가 촉발되며 텅커선 운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현재 MR탱커를 9척 보유하고 있으며, 연중 4척 추가 인도될 예정
기아 (000270.KS)	1/12	133,200	170,000	27.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셀토스 풀체인지 모델 출시 및 판매 본격화로 신차 효과 통한 물량 확대 지속 기대 이익 개선 및 그룹미래 모빌리티 사업구체화 통한 벤류업 기대
에스피지 (058610.KQ)	1/5	82,700	139,200	68.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적인 정밀기계부품인 유성/SR감속기를 모두 양산 가능한 국내 독보적인 기업 미국 주요 로봇 메이커의 4족 보행로봇에 에스피지의 유성감속기 적용 시작
삼성전자 (005930.KS)	1/2	119,900	190,000	58.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1/2	651,000	894,000	37.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4Q25 Review 매출액 32.8조원(YoY +66.0%), 영업이익 19.2조원(YoY +137.0%) 기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한국항공우주 (047810.KS)	1/2	114,400	175,400	53.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회성 비용 부채와 완제기 수출 부문의 일시적 믹스개선으로 3Q25 수익성 개선 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S-Oil (010950.KS)	1/2	83,000	110,900	33.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성 높아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1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0.06%	-0.60%p	+30.06%	-0.60%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AI테크 TOP10 (485540.KS)	2025.07.22	12,290	13,905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 핵심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AI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Magnificent7와 AI5 기업들에 집중하는 테마 ETF 상용화의 영역 확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버린 AI, 신제품 교체 수요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 중국 수출 규제 완화와 트럼프 정부의 AI 육성 정책 모멘텀도 긍정적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0,930	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WON 미국빌리어네어 (489290.KS)	2025.02.03	13,065	14,780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최상위 양만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로 구성하는 패시브 ETF. 미국에 상장된 주요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Tech,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필수소비재의 5개 업종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 브로드컴,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5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407830.KS)	2024.09.25	9,690	15,095	5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 전문화와 분업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기업들을 편입. 테슬라와 구글, 샤크미, 마이크로소프트, TSMC, 텐센트 등이 주요 구성 종목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QDF (미국 웰리티 배당 주식)	2026.02.02	82.93	83.16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량 배당주 선별 투자. 미국 상장 기업 중 펀더멘털(수익성, 경영 효율성, 현금흐름)이 우수하면서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퀄리티' 기업들로 구성 정책 변화와 금리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은 하락 방어력이 높음. 성장보다는 안정성과 현금 창출에 집중하는 균형추 역할 기대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4.78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412.55	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6.38	1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협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15	2.16	2.17	2.18	2.19	2.20	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4분기 전기비 연율화 GDP (0.2%, 3분기 -2.3%) ■ 일본 12월 전년대비/전월대비 광공업생산 F (2.6%/-0.1%, 11월 2.6%/-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12월 전월대비 3차 산업 지수 (-0.5%, 11월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2월 내구재 주문 (-1.4%, 11월 5.3%) ■ 미국 1월 전월대비 광공업생산 (0.7%, 12월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12월 전년대비/전월대비 핵심기계수주 (16.8%/19.1%, 11월 -6.4%/-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4분기 전기비 연율화 GDP (E 3.0%, 3분기 4.4%) ■ 미국 2월 S&P글로벌 제조업 PMI (E --, 1월 52.4p) 	
2.22	2.23	2.24	2.25	2.26	2.27	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2월 IFO 기업환경 (E --, 1월 8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2월 제조업 수주 (E --, 11월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존 2월 전년대비/전월대비 CPI 발표 (E --/--, -0.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2월 금융통화위원회 (E --, 1월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2월 CPI 발표 (E --, 1월 2.00%) ■ 독일 2월 IFO 기업환경 (E --, 1월 87.6)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알아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